

4

Long Bevel과 Self-Etching Primer를 이용한 치경부 병소 복합레진 수복의 치험례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보존학교실
임중장, 황인남, 오원만

치경부 병소는 부적절한 칫솔질, 화학적 침식 및 차아의 굴곡 등의 여러 원인에 의해 크게 cervical abrasion, erosion 및 abfraction의 형태로 나타난다. 최근 노령 환자층의 증가와 치주 치료에 의한 구강내 치아 잔존율의 증가는 치경부 병소의 증가를 가져왔다. 이러한 치경부 병소는 지각과민증, 우식 및 심미적 이유 등으로 수복을 시행하며 구치부위에 작은 우식이 없는 치경부 병소가 있는 경우 환자에게서 지각과민증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라면 수복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많은 예에서 더 이상의 치아 및 치주 조직의 손상을 억제하고 치수의 보호를 위해서 수복을 시행한다. 특히 전치부의 경우에는 병소가 작고 우식에 이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심미적 측면 때문에 수복을 시행하는 예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total etching 개념과 함께 접착시스템의 비약적인 발달이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5세대, 6세대 접착시스템도 발표되고 있다. 이런 상아질 접착시스템의 발전에 힘입어 많은 예에서 복합레진 수복이 다른 소복재들을 대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 복합레진 수복을 선택하는데는 물론 접착 시스템의 발달로 그 survival rate가 높아졌다는 이유도 있지만, 다른 중요한 이유는 치아색상에 가까운 색상을 재현에 내는 심미성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심미성 때문에 복합레진 수복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자연치아의 색상과 복합레진의 색상간에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이는 변연 부위에서 쉽게 눈에 띄게 된다.

이런 경우에 재료적인 한계인 복합레진 자체의 색상을 극복하고, 더욱 심미적인 복합레진 수복을 얻기 위해서 와동 형성시 법랑질 변연에 비정형적인 불규칙한 long bevel을 부여하여 변연 부위에서 색상이 자연스럽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치경부 병소의 aprismatic enamel 구조에 의한 접착력의 감소를 추가적인 bevel을 부여해 접착력의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잇점도 있다.

본 증례에서는 치경부 병소에 더 나은 심미성을 얻기 위해 long bevel 을 이용한 복합레진 수복 예를 보고하고자 한다.